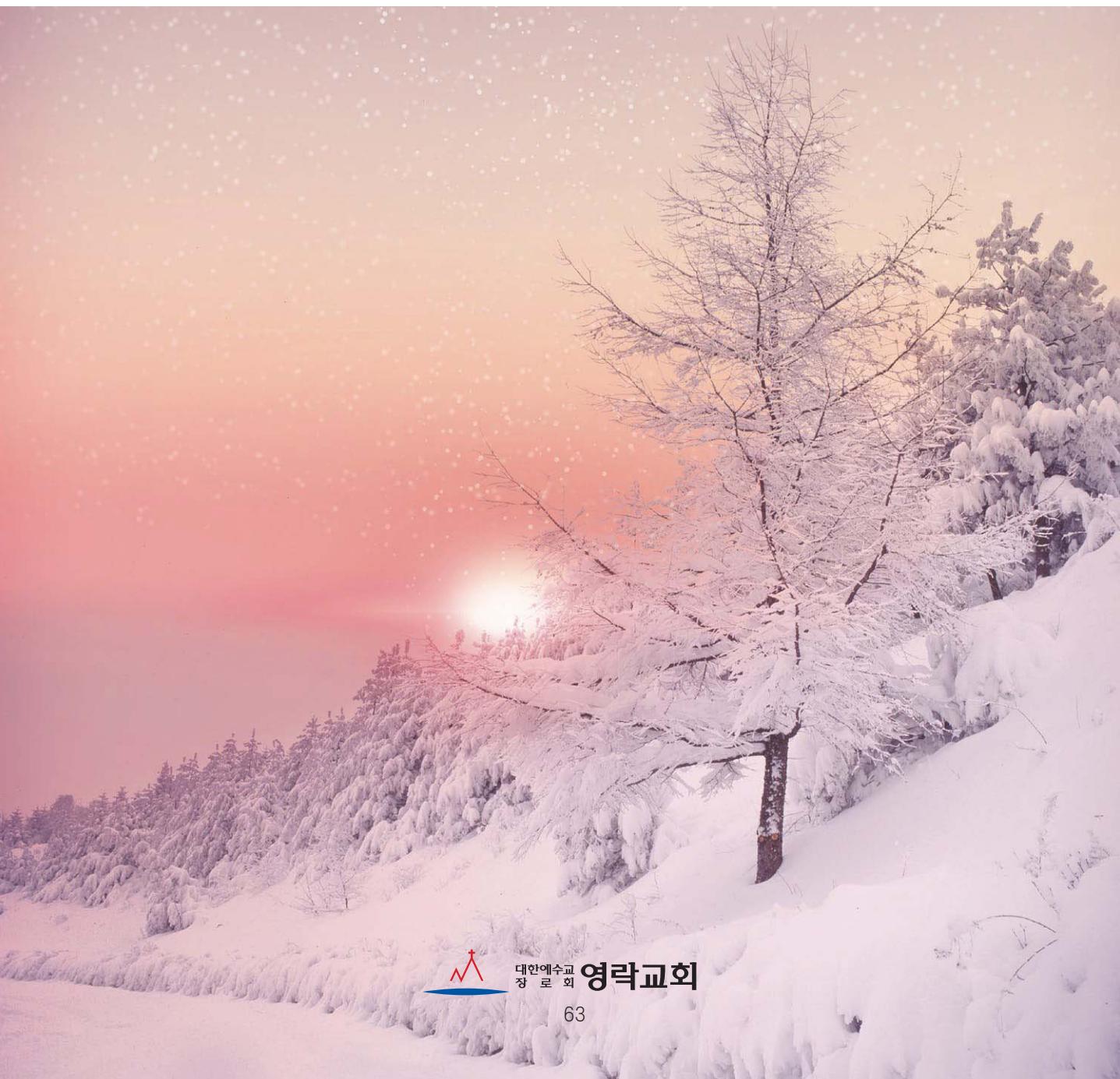


01

2026 vol.621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월 목회력

- 01 목 ·신년예배
- 01 목 ~ 03 토 ·신년기도회
- 03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9 금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11 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신임권사 임직 및 헌신예배, 제직회
- 16 금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18 주일 ·사랑부·고등부·대학부·청년회·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 23 금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25 주일 ·제직부총회, 사회봉사주일
- 31 토 ·교육부 신년기도회

CONTENTS



16

이달의 말씀

- 02 복음의 삶 _ 김운성

특별기고

- 04 영락 40주년에서 80주년까지, 회고와 감사 _ 오창학
- 06 만남 있는 곳 _ 윤두혁

신년특집

- 08 김운성 담임목사님 신년 인터뷰 _ 김성문
- 14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선교부 _ 김진우
- 16 말씀의 일출, 연결로 지어져 가는 오이코스 가정 _ 김지훈

땅끝까지 이르러

- 18 전방에 올려 퍼진 복음의 빛, 찬양의 위로 _ 김평주
- 20 영락교회 방송제, 8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_ 안진영

영락 글로벌

- 23 낯선 땅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새로 열린 삶 _ 응웬티느안



28

34

다음세대 / 청년광장

- 24 믿음으로 꽂 피우는 청소년들 한자리에 _ 승윤영
- 26 제이플로우교회 개척을 향한 첫 걸음 _ 이영호·이종실
- 28 차가운 골목에 내려놓은 따뜻한 사랑
_ 전홍진·윤경희·유하영·임세옹
- 30 복음으로 뜨거운 청년회! _ 권호찬
- 31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부부선교회 _ 송양훈

영락의 올타리

- 32 이미 시작된 복음통일, 부르심에 응답하다 _ 정성훈
- 34 예람워십과 함께한 감사 친양예배 _ 김경옥
- 36 시니어와 영성 “브라보, 은빛 라이프!” _ 황인숙
- 38 영락 평생대학 2025 실버스타 발표회 열려 _ 김경옥
- 40 은혜의 여정, 함께하신 하나님 _ 전태성
- 42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기뻐하며! _ 양승관
- 43 영락의 새가족으로 이끈 믿음의 길 _ 김현욱

교회소식

- 45 새아기·새가정
- 46 영락시어터 1월 상영 영화
- 47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음악예배 외
- 52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 53 2026년 제작부서 신임 차장
- 54 이임교역자 / 신임교역자
- 56 목회분담표
- 58 은퇴 향촌직
- 60 렘브란트의 〈야기 예수의 성전 봉헌〉 _ 이은혜
- 61 2026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복음의 삶



김운성 담임목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 27)

유기성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게재한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요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한 무신론자로부터 공개토론을 제안받았습니다. 박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증인을 두 사람 데리고 오시오. 대신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그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자 무신론자인 그 사람이 가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학생 때 처음 이 일화를 읽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100명의 증인을 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1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래전에 종회 교육부에서 공과를 편찬하면서 그 시리즈 제목 때문에 고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논의된 제목은 〈복음과 삶〉이었습니다. 괜찮은 제목으로 보입

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성경 공부 교재도 『복음과 삶』이지요. 그런데 교육부가 고민한 이유는 〈복음과 삶〉이라고 하면 복음과 삶이 유리된 듯 느껴진다는 것 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정작 삶은 복음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복음의 삶〉으로 전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도록 돋는 것이 교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생명의말씀사에서 출판한 성경 공부 교재 중에 『복음대로 삶』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B. 퍼거슨 목사의 저술인데, 그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책의 원제는 『Worthy』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NASB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합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스'는 삶이 복음과 일치하고, 어울리고, 복음과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살라는 요구를 함축합니다.

2026년 영락교회 표어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며, 그 중심은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의 내용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원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믿은 대로 살 때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양약과 같습니다. 약의 효능에 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알아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동의해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력이 있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악시오스…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말씀 듣는자, 믿음이 없다면 유익도 없다.

뜨거웠던 초기교회처럼

2026년 복음의 삶을 회복, 믿은 대로 살아가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하다는 뜻이겠지요.

2026년에는 복음을 믿고, 믿은 대로 살길 원합니다.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의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예배합시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의 삶을 삽시다. 겸손하라고 했으니 실제로 겸손합시다. 온유하라고 했으니 온유하도록 힘쓰고,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교회 조직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뻐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만날**

영락 40주년에서 80주년까지, 한 목회자의 회고와 감사



오창학 목사
신촌교회 원로
前 영락교회 수석부목사

저는 1978년부터 10년간 영락교회 부목사 및 수석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수련을 했습니다. 저의 평생 목회 여정에서 영락교회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은총이며 행운이었다고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홈커밍데이에 초청받은 후배 목사님들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40주년의 어제를 돌아보면서

회고하여 보니 1985년은 영락교회 창립 40주년 해였고, 지난해인 2025년은 창립 80주년 해였습니다. 1985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영락교회 본당에서는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와 한경직 목사님 성역 53주년 기념 및 유공자 표창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수석 부목사였던 제가 예배와 모든 예식을 인도하며 집례했습니다. 그날 순서에서 기도는 서울 노회장 박승은 목사님이 하셨고, 설교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당회장 김윤국 목사님이(히브리서 13:1~9, '동일하신 그리스도') 전하셨습니다. 이어 교회 약사보고는 김영배 장로님이, 축사는 총회장 이종성 목사님과 선교사 대표로 원일한 장로님이, 인사는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최창근 장로님이 담당하셨으며, 축도는 한경직 원로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설립자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하여 17명(고인 7명 포함)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40년 전 그때 순서 맡으셨던 분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독 저만이 생존해서 백발이 성성한 가운데 홈커밍데이에 초청되었습니다. 더구나 초청된 모든 교역자를 대표하여, 40년 전의 그 강단에서 40년 후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할 수 있었으니, 이 어찌 감개무량함이 아니겠습니까?

80주년의 오늘을 맞아서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영락교회를 거쳐 가신 전임 교역자 초청 홈커밍 예배가 기념사업회 위원장 김순미 장로님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기도는 행사분과장 김지연 장로님이, 성경봉독은 기념사업회 총무 김성현 장로님이, 설교는 4대 담임이셨던 임영수 목사님이(시편 126:1~6, ‘은혜의 80주년’), 환영사는 김운성 담임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초청된 모든 교역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축도는 이철신 원로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본당에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후 기념관으로 옮겨 용승한 오찬을 대접받은 뒤, 홈커밍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청받은 교역자 내외들과 영락교회에서 시무 중인 교역자들, 은퇴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기쁘고 보람된 상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홈커밍데이의 진정한 의미는 상봉, 즉 서로의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여섯 분과 한자리에서 상봉했습니다. 제가 시무하던 시절에 청년회장이었던 박순태 집사가 원로장로님이 되었고, 김지언, 서상현, 김종태, 공수일 네 청년을 시무장로님으로 만났습니다. 이상 다섯 장로님은 모두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오른쪽 사진) 여섯 번째 분은 오철훈 목사님으로 그도 영락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섬겼고, 현재는 흰돌교회에서 19년째 착실히 목회하고 있는 제 조카입니다. 참으로 흐뭇한 만남이었습니다.

100주년의 내일을 그려보면서

은혜로운 모든 순서가 마감될 즈음에, 김운성 담임목사

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이 없느냐고 할 때, 응답자가 없어서 제가 불쑥 등단하여 분위기를 즐겁게 하려고 저의 18번 ‘오 나의 태양(O Sole Mio)’를 열창하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2045년 창립 100주년 때는 꼭 남북이 통일된 상황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길 염원합니다. 영락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와 홈커밍데이에 김운성 목사님께서 제7대 담임목사님으로 그때 초청되어서 설교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염원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진심으로 축원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기쁨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끝으로 오전에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 인사의 말미에서 외쳤던 구호를 다시 옮겨봅니다.

“80주년을 맞는 영락교회여, 영원하라, 영광 있으라, 아멘!” **만날**



왼쪽부터 김종태 장로, 공수일 장로, 박순태 원로장로, 필자, 김지언 은퇴장로, 서상현 장로

만남 있는 곳

만남 있는 곳

어디든

꽃내음 가득한

꽃밭이라오

기억에 있던 얼굴들

보이지 않아 문안하니

천국에서 주를 향한

주바라기 꽃으로 웃고 계시었네

보고팠던 마음들

오랜 헤어짐 후

봉우리 꽃으로 피고

만남 있는 곳

주고 받는 대화

작고 큰 꽃들 편고

울리는 화음에 노래 같아라

자욱한 향기

온기로 잡은 손

그리고 노래 있어

크고 작은 등꽃으로

꽃밭

화안히 주변을 밝혀준다오

오!

꽃밭이 된답니다.

모두에겐

향기 흘러

주위를 싱그럽게 만들고

오순도순 이야기

고운 열매 되어

겸손, 겸손히

허리를 숙인다오

윤두혁 목사

1963년 1월 1일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 당선
서울강북노회 신성북교회 원로 / 노회 공로목사
일찍 영락교회 부목사로 교구와 홍보출판부 담당 만남지 편집
-영락35주년역사 부분 집필





“새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게 하소서!”

새해 첫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피어오를까요?

더 많이 소유하는 한 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 깊은 곳부터 춤추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80년의 길을 걸어온 영락교회는 이제,

마치 개척교회처럼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복음 앞에 서려 합니다.

가정과 일터, 구역과 교구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걸음을 가볍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영락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새해의 축복과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흘러,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개척교회처럼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김운성 담임목사님 인터뷰

글 정리 편집장 김성문 안수집사 / 사진 유승현 집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보낸 한 해의 끝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님이 조용히 꺼낸 고백이다.

지난 한 해, 80주년 기념사업은 길고도 숨 가빴다. 사송영락교회 개척, 코이노니아 공간 리모델링, 각종 기념 사업과 사역 등 2025년 내내 영락교회는 '80주년'을 입에 올리며 달려왔다.

이제 2026년, 영락교회는 새 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를 불들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개척 교회 같은 영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대형 교회의 외형을 넘어 각 가정과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라는 자의식을 갖는 공동체. 김운성 목사님을 만나 80주년의 소회와 2026년 목회 방향, 다음세대를 향한 고민, 그리고 담임목사로서의 개인적인 기도와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80주년, 교회 중심으로 다시 모여

“80주년이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계획했던 일 중에는 이룬 것도 있고, 미진하게 남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게 돌아보는 것은 80주년을 준비하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는 점이다. 기도 수첩을 나누고, 사송영락교회를 세우고, 사역 현장을 정비하면서 성도들 모두 교회에 애착과 책임감이 깊어졌다. 한 장로는 “이렇게 1년 내내 80주년, 80주년 하면서 살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속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뭔가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열매는 앞으로 더 거두게 되겠지요.”

김운성 목사님은 80주년을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미래의 씨앗’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개척 교회처럼

2026년 목회 방향을 설명하면서 ‘마치 개척 교회처럼’이라는 표현을 꺼냈다. 그 말 뒤에는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현실 인식이 놓여 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약 만 개 교회 중 100명 이하 교회가 75%이며, 그 중 윗값이 40명대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는 교회는 대부분 대형 교회이다. 대형 교회는 잘 짜인 조직과 시스템 덕분에 안정감은 있지만, 그만큼 ‘역동성’이 부족하다. 영락교회는 시스템에 의해 큰 혼들림 없이 움직여 왔지만, 그 견고함 속에 감춰진 위험 신호를 본다.

“성도들이 교회 일에 너무 함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복음의 기쁨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이다.’라는 자부심이 앞설 때, 그것이 왜곡된 자존심과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는 한다.’는 생각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1주년을 ‘회상’이 아니라 ‘새출발’의 해로 보고자 한다. 외형은 크지만 작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마치 개척 교회처럼’이라는 표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과 성령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 각자는 움직이는 작은 교회

그는 부산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해 교인이 300명, 500명, 7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과정을 몸으로 겪었다.

“영락교회에 올 때 제일 부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목회냐, 아니면 조직을 끌고 가는 대표자의 역할이냐?’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조직 운영을 맡기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영락교회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성도가 만 명이면, 만 개의 교회가 있어야죠.”

각자가 어디에 있든 ‘나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교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 말씀과 기도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림이다.

영락교회는 계속 다니기 어렵다? 소그룹사역에 해결책이

김운성 목사님의 마음에 오래 남은 한 성도의 고백이 있다. 짧은 시절 10년 가까이 영락교회를 다녔고, 자녀들까지 보내며 교회를 사랑했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

“영락교회는 계속 다니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유는 단순했다.

“왔다 가도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안 와도 ‘왜 안 오세요?’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단단히 형성된 관계의 블록 안으로 새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토로였다.

“개척 교회는 누가 한 명만 와도 엄청나게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지만, 그 이상 관계와 돌봄의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는 이 빈틈을 메우는 해결책 역시 소그룹에서 찾는다. 모든 성도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소그룹 안에서는 이름과 사정을 알고, 교회에 오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다.

‘건강한 큰 교회’의 책임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 교회 앞에 섰던 시절, 영락교회는 군선교와 복음 통일, 연합사역의 선봉에 섰다. 이후 새로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영락교회는 큰 깃발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뒤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철신 목사님 시절에 집중했던 북한선교, 탈북민 사역, 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 양성이 대표적이다.

요즘도 영락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기준’으로 거론된다.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한국 교회를 위한 역할을 논의할 때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일단 영락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는 그때 가서 대응합시다.”

그는 영락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건강한 큰 교회’의 책임은 두 가지다. 첫째,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감당하는 것. 예를 들면, 군 종교시설과 신학교, 선교단체, 연합사역에 재정과 인력을 보내는 일이다. 둘째, 부정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않는 깨끗함과 건강함이다. 세습이나 불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지탄받는 일부 대형 교회와 달리, 영락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

는 것’만으로도 한국 교회에 신뢰를 준다는 것이다.

남은 2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끝까지

김운성 목사님은 은퇴까지 이제 약 2년이 남았다. 처음 청빙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는 은퇴까지 약 10년밖에 안 남았었다.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말씀 산책’ 영상이다. 2020년 3월부터 매일 말씀을 전해 온 이 시리즈는 그의 은퇴와 함께 자연스러운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새롭게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말씀 산책’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어 가려고 합니다.”

후임 담임목사 이야기를 하며 그는 “영락교회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많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안정된 예배와 설교, 연령층을 아우르는 인간관계, 균형 잡힌 행정 감각, 복음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한국 교회와 교단을 향한 역사의식과 애정까지,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두고 호불호를 나누는 대신, ‘어떤 목회자 상이 필요한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월간지『만남』, 소식지이자 전도지

매달 월간지『만남』에 글을 싣는 김운성 목사님은 먼저 이 잡지의 이름을 언급했다.

“『만남』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알 수 없는, 영락교회 곳곳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통로니까요.”

많은 어르신이『만남』을 기다린다고 한다. 예배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교회학교 소식, 선교와 봉사 현장,



『만남』 1월호 신년특집 인터뷰 중인 김운성 목사님

청년과 3040의 이야기를 이 잡지에서 처음 접하기 때 문이다. 어떤 성도는 김 목사님의 글을 여러 번 읽고, 여백에 각주와 소감을 빼곡히 적어 건네기도 했다.

“성도들의 마음에 조용히 호소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하고 영락교회에 소속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글이면 충분해요.”

그의 눈에 『만남』은 교회 내 소식지이자 전도지이다. 3040 특집, 건강 정보, 다음세대 이야기 등 특정 지면을 따로 묶어 소책자나 디지털 파일로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영락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이슈 vs 성경적 이슈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한국 사회의 쟁점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를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수한 정치 이슈에 교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경적 가치와 신앙고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나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고백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교회가 순교적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그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해 국회 앞에서 생명 가치를 위해 호소하기도 했다.

‘다음세대’는 투 트랙 시각으로

다음세대 목회에 관한 질문에 김운성 목사님은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다음세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떠올리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누가 떠받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60세 이상 노년 세대가 다음세대입니다.”

70세가 되면 직분에서 은퇴해야하는 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청년·3040 세대를 향해서도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회에 깊이 얹히기보다 ‘가볍게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의 마음조차 설 불리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



목사님 인터뷰 때 방문한 홍보출판부 임원들

(왼쪽부터 홍보출판부 소남호 안수집사, 부장 김주현 장로, 김운성 목사님, 조지형 안수집사, 『만남』 편집장 김성문 안수집사)

다. 영적 갈망이 있으니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그는 오늘의 신앙인을 설명하며 ‘소셜 크리스천 (Social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꺼냈다. 우리의 역량이 100이라면, 예전에는 90을 교회 안에서 쓰고 10만 바깥에서 썼지만, 이제는 거꾸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와 봉사 등 교회 안에서 쓰는 에너지는 10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90은 가정과 일터, 사회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내가 ‘우리 남편 진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해 야 진짜 크리스천이죠.”

집에서는 대화도 없고 불화 속에 부부 생활이 위태로운데, 교회에서만 직분과 일에 집착하고 충성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직장에서는 불성실하다고 평가받으며, 교회에서만 열심인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배당보다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 한가운데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진정성

을 드리낼 때 비로소 세상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기독교인도 진짜 멋진 사람 많구나!”

그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눈물, 아들의 고백 – 목사님을 붙드는 두 사람

“지금의 김운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는 한 문장,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나를 붙들어 주는 성경 구절이 여럿 있지만, 먼저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라고 했다.

이복에서 피난 내려와 아들을 목회자로 키워 온 아버지는, 그가 부산 목회를 망설이던 시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목사가 된 건 네 인생만이 아니고, 내 인생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목사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했다. 그 말을 기억하는 김운성 목사님은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강단에 서 왔다.

최근에는 아들의 한마디가 또 다른 격려가 되었다.



홍보출판부를 방문하여 수고하는 편집·교열위원 및 기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김운성 목사님

바쁜 삶 가운데 성경을 깊이 읽고 싶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올리는 ‘말씀 산책’ 영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아빠가 은퇴해서 더 이상 안 찍는다고 생각하니 섭섭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 해.”라고 덧붙였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목사가 될 수는 없겠지요. 고맙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가 평생 볼드는 가치는 ‘성결’과 ‘자유’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과 명예를 내려 놓음으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새벽기도와 소소한 일상, 목사님 영성 지키는 작은 습관

“주님께서 제게 비교적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라며 웃는다. 아무리 바빠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 하나는 있어야겠다며 볼드는 것은 새벽기도이다.

출타 중에도 그 지역 교회의 새벽기도에 참석한다. 성도 서너 명이 모인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된다.

아내의 묵묵한 동행도 큰 힘이다. “왜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느냐?”라고 불평하기보다, 남편이 목회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역자 덕분에, 월요일 오전의 짧은 휴식, 아내와 동네를 걷고 차 한 잔 나누는 소소한 일상에서 큰 회복을 누린다.

더 기쁜 2026년을 향한 축복

2026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부탁하자, 김운성 목사님은 잠시 망설인 뒤 말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으로 들릴까 조심스럽지만, 그가 말하는 행복의 근원은 분명하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삶’이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는 한 가지 소원을 품는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미소 짓는 한 해를 살게 되기를.

그 기쁨이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오늘도 새벽 강단과 조용한 목양실에서 김운성 목사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한다. **만남**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선교부

김진우 목사_선교부 전담



2025년 선교부 사역을 돌아보면, 2025년 표어처럼 거룩한 땅 영락교회에서 비상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국내외 선교사역을 활발히 감당했고, 8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영락교회 선교부는 2026년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선교부’라는 표어 아래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역 방향을 영락의 성도들과 공유하며, 더욱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선교부

1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청해야 합니다. 영락교회 선교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선교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부와 관련된 모든 모임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욱 충실히 마련하고, 각 자치단체 역시 사역에 앞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선교부

2

2026년 영락교회가 추는 춤은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선교부의 사역도 특정 개인이나 분야에 국한하거나 강조되지 않고, 선교부의 모든 사역자와 위원, 성도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춤추는 선교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교사역에 더욱 동참하고
지원함으로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는 선교부

3

담임목사님께서는 2026년을 영락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과 같은 해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선교부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하며 선교사역의 지경을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학원선교, 문화선교, 유학생선교 등 다양한 선교 영역들은 물론, 남녀선교회와 청년회, 부부선교회와 여러 소단체 선교회들의 실제 상황과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필요에 맞는 접근과 지원을 통해 각 선교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존재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춤추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영락의 모든 성도께서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날**

말씀의 일출, 연결로 지어져 가는 오이코스 가정

김지훈 집사_마포·영등포교구



저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굴업도에 다녀왔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과 일몰 명소인 ‘개머리언덕’에서 자연 속 회복과 휴식을 만끽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혼자 일출을 보러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새벽길은 깜깜하고 무서웠으며,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뜨기 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명의 순간을 보며 ‘아, 우리의 삶도 이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해가 뜨기 전처럼 천천히 밝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말씀의 빛

우리 삶은 때로 깊은 밤, 길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막막합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늘이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듯이, ‘여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는 첫 신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이코스’ 경건 운동은 우리의 일상에 바로 이 여명을 선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SNS로 전달받는 말씀 링크를 통해 출근길에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는 곧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신앙의 일출’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운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산책’과 부목사님들의 ‘오이코스’ 새벽기도회 말씀 영상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이코스’는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며, 삶이 암흑 같은 순간을 지날지라도 언젠가 환하게 빛날 우리의 순간이 찾아옴을 알려줍니다.

자리를 옮겨 발견하는 새로운 아름다움

굴업도에서의 일출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

었습니다. 언덕에서는 제 위치를 조금만 옆으로 옮겨도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가 최고다!’ 하며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언제나 더 새롭고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오이코스’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말씀 묵상이 단순히 지식 쌓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하루하루 다른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시선을 바꾸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신앙 성숙을 넘어, 받은 말씀을 제가 속한 소그룹 공동체 ‘채움’에 공유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 나눔은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천이며, 공동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오이코스’의 핵심 목표를 이루는 길입니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처소

지난해 12월 4일(목), 방덕종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이 모든 깨달음을 관통하는 핵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인 구원의 은혜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어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첫째, 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

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며, 목사님께서는 이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연결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영락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이코스 가정, 작은 교회로 지어져 감

이러한 ‘연결’의 깨달음을 제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2012년 10월에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부모님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오이코스’ 말씀을 토대로 부모님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묵상한 깊은 적용 내용과 함께 안부 인사를 SNS로 전하며,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눔이 바로 말씀 안에서의 ‘연결’의 실천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말씀이라는 공동의 토대 위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이 행위를 통해,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이코스’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운동을 넘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의 가정을 화평하게 하며, 말씀으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말씀의 일출을 맞이하며, 오늘도 이 귀한 연결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만날](#)

전방에 울려 퍼진 복음의 빛, 찬양의 위로



선교부와 전도부, 음악부는 올겨울 두 차례에 걸쳐 전방 군부대를 함께 방문하여,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복음과 위로의 찬양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 군선교팀)가 현장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도부, 음악부와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 뜻깊은 동역의 현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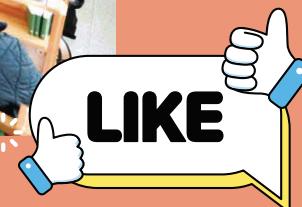
김평주 안수집사
서초교구
선교부 군선교1팀장



전도폭발팀의 장병 대상 복음 제시



5사단 열쇠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열쇠교회, 복음의 씨앗을 심다

11월 23일 주일, 선교부는 경기도 연천의 5사단 사령부 열쇠교회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함께 1부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쇠교회를 섬기고 계신 군종 목사 김대용 소령(예장통합)과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로 평안하게 예배 및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었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 예배에서는 전도부 전담 강승훈 목사님께서 '승리의 열쇠'(에베소서 6:10~13)라는 제목으로 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전도부장 김무섭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전도부의 전도폭발팀 50여 명이 140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복음을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장병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마음 깊이 심어지는 선명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교회, 찬양과 낭독으로 고백

두 번째 사역은 12월 10일,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위치한 3사단 충성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오지

라서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곳이기도 했고, 날씨도 매우 쌀쌀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성교회를 담당하는 군선교사 임연순 목사(예장통합)와 해당 부대 부대장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 가운데, 약 80명의 장병이 참석한 예배당에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음악부의 김진수 권사가 지휘하는 바요나·이엘 합창단 35명이 동행하여 '영광! 주께 영광!'이라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하며 장병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칸타타는 장병들이 직접 내레이션 순서를 맡아 참여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장병 스스로 복음의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는 감동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과 낭독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장병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성탄의 기쁜 소식이 깊이 스며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군종 용사는 내년에 제대하면 영락교회에 나오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군선교, 더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번 두 차례의 전방사역은 영락교회 여러 부서가 한마음으로 동역하며 이루어낸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전도부의 복음 열정, 음악부의 찬양 헌신, 선교부의 현장 섬김이 한데 모이니, 젊은 장병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부는 앞으로도 영락교회 여러 부서와 동역하며, 전방 곳곳에서 장병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복음 전파와 은혜로운 찬양이 장병들에게 큰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바요나·이엘 합창단, 용사들과 함께한 칸타타를 마치고

영락교회 방송제, 8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평생대학 연합 연주팀
영락시니어양상블

80년 신양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영락교회는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김응락 장로님과 김창화 집사님의 순교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을 한경직 목사님의 그림자처럼 동행하셨던 한국의 바나바 최창근 장로님, 근래에는 '바보의사'라 불리며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명히 남긴 '바보 의사' 안수현 영락청년의 영상을 편집하며 우리 모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함께 시청하고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지난 2025년 12월 6일 선교부 문화선교 주관으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방송제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뉴스'로 돌아본 영락의 역사

이뿐만 아니라 인천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전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실과 태국에 최초로 파송한 최찬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해외선교사역 등을 '10대 뉴스'로 죽약하며, 지난 80년을 되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영락 '미디어 세벗'의 시니어들이 만들게 되어 그 영광과 찬양을 그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80년 동안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영락교회를 굳건히 보



안진영 집사
강남교구
선교부 문화선교자문위원
80주년 기념방송제 연출

호하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려한 신앙 선배들의 간증들과 신앙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올린 '생일잔치' 무대

귀여운 유치부, 소년부의 찬양과 율동, 중등부 찬양밴드팀 '에클레시아'의 기타, 드럼, 신시사이저의 찬양 공연, 대학부의 '보이는 라디오' 공연, 제1여전도회, 제3남선교회가 함께 열연한 세미뮤지컬, 그리고 평생대학 연합연주팀 '시니어앙상블'의 다양한 악기의 아름다운 협연, 문화선교 워십팀 '스티그마'와 발레팀 '샤론' 등 손자, 손녀 세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70~80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거의 모든 세대가 뜻뜻한 초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는 영락방송제 생일잔치를 베다니홀 무대에서 펼쳤습니다.

'미디어 세벗'의 시작

지난 초여름, 선교부 문화선교팀에서는 '영상자서전 만들기 교실'을 두 달 동안 개설하여 약 20명의 성도가 자신의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어떤 분은 2분, 어떤 분

은 3분 정도의 길이로 간단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갖고 있던 사진들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 영상 자서전을 본인의 목소리로 스토리를 읽어 녹음하여 한 뼘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 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 되어 교육을 마친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봉사를 하자는 마음으로 영락교회 선교부 산하 소단체로 영상선교팀인 '미디어 세벗'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세벗은 하나님의 벗, 교우의 벗, 이웃의 벗이란 뜻입니다.

두 렙돈의 마음으로 준비한 방송제

모두가 아마추어로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깔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영락교회 80주년 기념 방송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방송제는 영상과 공연에 수반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밟쳐주는 음향, 조명, 제반 기술 조건 등이 포함된 상당히 다채로운 축제입니다. 우리는 외부 출연자들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외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우리의 순수함으로만 준비했습니다. 드릴 게 이것, 이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꾸밈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1여전도회, 제3남선교회 연합 뮤지컬 연습 중



‘영락교회의 과거로 미래를 이야기하다’ 토크쇼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연 中 유치부 공연

마가복음 12:44, 누가복음 21:1~4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적은 두 렙돈을 넣는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을 전부 담기로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찾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10대 뉴스’ 제작 과정의 고백

80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며 준비한 10대 뉴스는 선교부에서 처음에 50개의 항목을 서면 조사해서 선정해 주시고, 그중에서 20여 개를 주보광고를 통한 QR코드로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여 개 모두 중요하고 귀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20개 뉴스를 10개의 뉴스로 묶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자료실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우리 교회 뉴스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순수 아마추어인 우리가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만든 영상들이 모든 면에서 너무 미숙하고 소박한 것들이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에 한 번쯤은 되새기고 넘어가야 할 사명임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우리조차 우리가 그동안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너무나도 잊고 지내온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감동과 미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

2025년 12월 6일은 그야말로 온 가족 잔치였습니다. 손주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영락교회 온 가족이 모여서 그동안 영락교회를 빛내온 신앙의 선배들과 앞으로 영락교회를 더욱 빛내 줄 신앙의 후배 세대들이 함께 노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번다니 교회에서 시작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80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전통과 저력을 재확인해보는 진정한 의미의 생일잔치였습니다. 그날 공연을 보신 분보다는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공연의 감동을 교회 홈페이지 등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합니다. 지금껏 교회를 빛내오신 분과 빛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영락교회를 계속 빛을 비추어나갈 온 세대들이 초대교회의 뜨거움으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화합의 이야기들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날**

“낯선 땅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새로 열린 삶”



응웬티느안
외국인교구

하나님을 알기 전, 제 삶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부담스
러웠습니다. 저는 종종 공허했

고, 미래가 걱정되어 제가 하는 일

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곤 했습니다. 주변
에 많은 친구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소외
감을 자주 느꼈습니다. 다양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
인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의 저는 어떻게 살
아갈지 몰랐고, 친구가 없을까 봐, 혼자라서 슬플까 봐 두
려웠습니다. 출국 전날 코로나에 걸려 비행이 지연되었습
니다. 코로나 관련 서류를 다시 만드는 데 더 많은 돈을 써
야 했으며 약 2주간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격리된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
었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기간에
같은 방을 쓰게 된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녀는 궁금해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습니
다. 한국에 온 직후 그 친구를 통해 영락교회에 다니게 되었
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과 가족 같은 사랑을 통해 저의 방향은
줄었고, 외로움도 덜해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알
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소그룹 모
임에 참여하며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
람에게 더 인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의 압박감이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는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저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믿
습니다. 저의 삶에 더 많은 목표가 세워지고, 하루하루가 하
나님의 사랑과 뜻에 따라 살 기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님
과 동행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희망과 기쁨을 주었
습니다. **만남**



믿음으로 꽂 피우는 청소년들 한자리에

기독교 학교 140주년 맞아 성대하게 열려



2025년 11월 22일(토) 영락교회에서 올해 기독교 학교 설립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기독교교육의 유산을 되새기고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기 위한 '기독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한국기독교 학교연합회, (사)명지대교육미션센터,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영락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기독교 학교의 역사와 정신을 문화적으로 계승하고 청소년들이 신앙과 공동체, 문화를 연결하는 창의적 공간을 경험하도록 돋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록적 참여와 높은 수준의 본선 경쟁

오후 1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드림홀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 학교의 모습', '우리가 제안하는 한국 교회 부흥 전략'이라는 주제로 PT 발표·토론 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11월 7일에 치른 예선에서는 서울·경기·수원·호남·중부 등 32개 기관에서 94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제출 자료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어 당초 예상보다 15개 팀, 58명으로 확대 선발된 본선 팀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조사, 성경적 근거 제시, 예리한 질의, 경청과 집중력 있는 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신앙적 문제의식과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평가 방식은 교육·신학계 전문가 7인의 심사위원 평가 70%, 참가 팀 현장 상호평가 25%, 관중 평가 5%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과 토론의 성숙도를 높였다. 대상은 콘트로 주제를 재치 있게 표현한 '광성드림학교(고등부: 목적이 괴리를 줄이는 학교)'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광성드림학교(중등부: 청소년들의 예배 회복으로 시작되는 부흥)'와 '영락교회 고등부(함께 만드는 교회와 세상의 연결점)'가 수상했다. 이들은 상금과 함께 국내외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특히 대상 팀은 2026년 겨울, 미국 동부 주요 대학과 기관을 방문하는 기독교 비전 탐방 프로그램의 특전이 주어진다.

신앙과 예술이 만난 무대

발표·토론 대회와 같은 시간대에 베다니홀에서는 10월 30일 영상 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8개 팀(중등 10팀, 고등

8팀)이 본선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합창, CCD, 보컬 밴드, 치어리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찬양 페스티벌을 펼쳤다. 참가 팀 대부분이 학교 기독동아리로 활동하며 예배를 섬기는 학생들로 구성돼, 경연은 진정성 있는 찬양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중등부 대상은 '은혜&A Christmas Festival'을 연주한 54명의 '숭실소년관현악단', 고등부 대상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곡에 맞춘 정의여고의 '아르페' 치어리딩 팀이 차지했다.

축제의 절정은 기독 아티스트 특별 공연이었다. '해리티지 매스 콰이어'와 '비와이', '영락교회 고등부 찬양대'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베다니홀을 하나로 묶었다. 베다니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풍선과 야광 팔찌를 흔들며 함께 찬양했고, 마지막 합동 무대에서는 기독교 학교 1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영상과 웅장한 찬양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남겼다.

대회를 마치며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은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부흥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신앙고백과 혼신에 도전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축제가 앞으로의 신앙적·교육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이후 기독교교육의 공공적 역할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만남**

취재 승윤영 기자



제이플로우교회 (J.FLOW CHURCH)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개척의 첫 걸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희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영락교회의 다음세대와 함께 웃고 울며 지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에 순종하며, 저희 두 사람은 공동 개척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왜 두 사람이 함께 개척하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길은 13년 전 장신대 신대원 시절부터 품어온 비전이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고민의 시간 속에서 그 비전은 더 선명해졌고, 하나님은 저희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 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도서 4:9~10)



이영호 목사
전 영락고등부



이종실 목사
전 영락중등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17)

공동 목회는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고, 서로 세우며,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서로를 연마하고 불들어 일으키는 동역은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합니다. 경쟁이 아닌 동역,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 목회의 길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순간마다 '함께이기에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듯, 저희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담대히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세계 복음 전파에 있어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 팀 켈러

새롭게 시작될 제이플로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대와 다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청년 복음화율은 3%대에 머무르고 있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성도(크리스천이라 말하지만 교회에 **안나가는** 성도)가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접점을 통해 청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지적 갈증이 있는 이들과는 변증적 대화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젊은 가정들이 예배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 가정이 다음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음세대가 모여드는 성수 한복판에 우리에게 작은 첫 예배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서울숲 갤러리아포레지하 1층에 있는 공유 예배 공간을 빌려 2026년 2월 1일(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공간은 주일 두 시간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첫 번째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시작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세대와 가정, 그리고 일상의 현장에서 만날 청년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며 오늘도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음세대와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개척의 길을 걷는 두 목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날**



연탄 한 장, 청년 한 마음 차가운 골목에 내려놓은 따뜻한 사랑

지난 11월, 대학부·베드로부·청년회 청년들이 연합 동아리 '이음'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기후취약계층 이웃 가정들을 위해 1,200장의 연탄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차가운 골목 곳곳에 따뜻한 온기와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품은 연탄사역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탈탄소 시대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그늘이 있습니다. 연탄에서 나오는 온기에 의지하며 한겨울을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른바 '기후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한기가 세상을 채우기 전인 11월, 대학부와 청년회 연합 동아리 '이음'('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잇다'의 의미)이 빨래골(강북구 수유동) 거주민 세 가구를 방문하여 1,200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그마한 연탄을 나르며 흘린 땀과 깃든 정성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영락교회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사선이 머문 곳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홍진 집사
청년회, 이음 팀장

연탄을 메고 하나 된 청년들

대학부, 베드로부, 청년회 등 영락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강북구의 한 마을에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연탄 지게를 메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줄도 모른 채 서로 보조를 맞추며 연탄을 옮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예상보다 무게가 나가는 연탄에 놀라기도 하고, 수백 장의 연탄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쉬지 않고 오르내리는 일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많

은 연탄을 옮겼음에도, 그 양이 한두 달을 겨우 버틸 분량이라는 사실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 친구는 오래된 창고 안에서 얼굴이 깨매진 것도, 옷이 땀에 흠뻑 젖은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섬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집주인분들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집에 있는 간식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노고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길이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순간에 전해진 소중한 도움임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힘든 줄도 모르고 기꺼이 참여해 준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 위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경희 성도
청년회, 이음 부팀장

서로에게 연탄이 된 순간

안도현의 시 <연탄 한 장>에서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빨래골 연탄 봉사는 서로에게 연탄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 할머니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연신 ‘고맙다, 고생한다.’ 인사하시며 연탄 300장을 집 앞에 쌓을 때까지 따스한 미소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연탄을 메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함께했던 분들의 눈 맞춤과 응원 역시 따뜻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연탄을 주고받을 때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훈자가 편하고 비난이 익숙한 추운 세상이지만 빨래골에서는 함께이기에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탄 한 장 한 장이 된다면 오랫동안 따스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유하영 성도
대학부

예수님의 손길을 배우는 하루

지난달 8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으로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서울에도 연탄을 때고 있는 집들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봉사를 신청했고,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집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만나지 않을 법한, 다소 열악한 환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당장 내 앞길에 쓸려 있어 사회에서 가려진 곳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을 더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더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마글**



임세용 성도
대학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뜨거운 청년회!



권호찬 집사
청년회 회장
모리아

지난 11월, 청년회는 82차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섬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담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청년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저에게는 청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니 현실 속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청년의 때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생의 방향성과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을 청년회 청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청년이 청년의 때에 하나

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이 청년의 때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이 개인 신앙의 성장을 넘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대목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청년이 아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살며 근심 걱정하는 청년이 아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청년이 되어라.’

우리 청년회가 그런 청년들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부부선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부부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라는 가정을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믿음의 대(代)가 이어지도록 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고백하며, 부부가 하나 되어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엮어 주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배려와 격려, 사랑과 이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그 회복이 교회의 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

신앙의 중심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곧 가정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흔들림이 없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갖게 됨을 알고 노

력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연합의 공동체

우리의 성장은 개인 혹은 한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를 세워 주는 공동체가 될 때, 부부선교회 전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사명 공동체

부부가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할 때, 우리 가정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드러내는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선교회는 올해 이 비전을 따라 한 부부의 성장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단단해지는 선한 순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교회와 세상을 향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이미 시작된 복음통일, 부르심에 응답하다



정성훈 전도사
북한선교부



북한선교사역을 시작하기까지

통일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때때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뉴스도 관심 있게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늘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고, ‘지금 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북한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한 선교사이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3만 4천 명의 탈북민조차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2천 3백만을 품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통일이 더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일 것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습니다.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자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통일 준비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북한선교였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이사야 6:8) 이 말씀을 통해 북한선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밤을 새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과 함께 저의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막 입학하여 첫 사역지를 기도하며 찾던 2022년이었습니다.

미리 온 복음통일의 현장

탈북 자유인(이하, 자유인) 성도들과의 첫 만남은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유인 청년들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뿐, 누구도 제 인사에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머쓱하던지요! 그러나 계속 가까이 다가가며 마음 문을 두드리니 어느새 마음을 활짝 열어 주었고, 저들의 속사정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첫인상 뒤에는 날을 세우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던 가슴 시린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어버이 수령’에게 이미 한번 속아본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업과 신앙생활을 갑자기 내려놓는 충동적인 선택들 속에는 생사의 기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북녘 가족들의 애끓는 전화

한 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틀림’보다는 ‘다름’을, ‘다름’보다는 ‘닮음’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복음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 북에서 굶어 죽은 자녀의 소식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상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 버리겠다’ 하며 인생을 저주하던 그 입술에서 찬송과 간증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서로 경계의 눈초리로 대하던 남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통일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져야 할 부르심의 여정

복음통일의 역사는 이처럼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여정에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다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작은 고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8천만 민족 복음화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날**

예람워십과 함께한 은혜의 80주년 감사 찬양예배

취재 김경옥 기자

은혜의 80주년 감사 찬양예배의 현장

지난 11월 28일 본당에서 ‘은혜의 80주년 감사 찬양예배’가 우리 교회와 창립 8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사송영락교회(담임 전혁 목사), 월드비전의 주관으로 열렸다. 본당은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와 청년으로 가득 찼으며, 보조 의자를 배치하고 부속실까지 개방할 만큼 많은 인원이 모였다. 찬양사역팀으로 유명한 예람워십이 초청된 찬양예배에는 사송영락교회 성도들도 참여했다. 참석 인원이 3,000명이 넘는 이날 예배는 예람워십 싱어들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역동적 찬양과 마음을 쓸는 뜨거운 기도로 이어졌다.



예배를 통한 세대의 변화와 도전

한 언론사는 보수적 전통 교회인 영락교회가 처음으로 강단에 드럼과 키보드 등 현대적 악기와 음향 시설을 설치하고, 찬양대석의 장의자와 예배당 앞자리 의자의 위치를 옮겨 무대를 확장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준비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다음세대의 부흥을 모색한 획기적인 변화이자 역사에 남을 도전이었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을 격려한 김운성 담임목사는 말씀을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었던 당시의 비극을 회상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는 시편 고백을 들어 “영락교회는 전쟁의 참화 속 피난길에 부산영락교회, 제주영락교회, 대구영락교회를 세웠고, 양산중앙교회를 거쳐 올해 사송영락교회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이어왔으며, 하나님이 모든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며,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사 고백을 전했다.

다음세대를 향한 감사와 헌신의 다짐

말씀에 이어 젊은 세대들은 손뼉을 치고 뛰며 예배당을 뜨겁게 데웠고, 눈물의 기도와 찬양, 힘찬 합성으로 믿음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 주었다.

김순미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는 “8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치며 다음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찬양예배를 드리게 돼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영상을 통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경직 목사가 밥 피어스 목사와 함께 고아와 미망인을 위한 구호사역을 펼쳤던 헌신이 오늘의 월드비전이 세워진 출발점이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이어가길 바라며 마음을 모으는 후원 모집도 펼쳤다. **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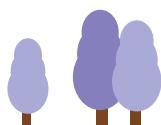


전혁 목사(사송영락교회 담임, 예람워십 대표)

시니어와 영성 “브라보, 은빛 라이프!”



황인숙 성도
용인·화성교구



인생 후반기 준비, 시니어 학교

이번 시니어학교는 제가 처음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일예배 주보에서 ‘시니어와 영성,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그 한 문장이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낼까?’ 90세가 되었을 때 막연히 품었던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도원에라도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시니어학교 광고는 제게 큰 위로이자 응답처럼 느껴졌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그동안의 저는 제 삶을 의미 없이 보냈다는 후회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도 못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에게도 부드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나다!’라는 태도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시니어학교의 주제는 ‘시니어와 영성’이었고, 첫 주 최재선 목사님의 ‘은혜로 빛나는 시니어 영성’ 강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빛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이은하 교수님의 ‘잘 살아온 나!(내 인생 돌아보기)’, ‘축복합니다!(몸과 마음 돌봄&신앙 전수)’ 강의를 들으며, 나와 타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자꾸만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통해,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겸손히, 이웃을 돌아보며 ‘참 잘 살아온 나!’라는 고백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된 시간이어서 다른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로웠지만… 시니어학교 통해 따뜻해졌다

그동안에는 주일예배를 혼자 드리고, 혼자 오고 가며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니어학교를 통해 여러 권사님과 함께 인사하고 대화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교수님, 전도사님, 스태프 분들의 사랑 가득한 친절과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권사님들과 친목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남**





몸 찬양



하모니카(초급)



오카리나



실버댄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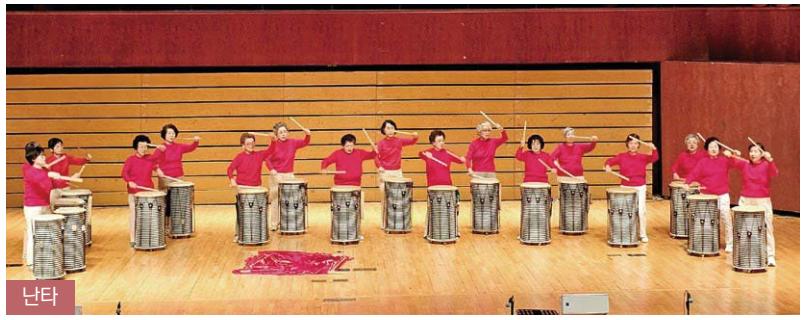
영락 평생대학 2025 실버스타 발표회 열려

취재 김경옥 기자

지난 11월 26일(수)에는 친교부(부장 양지청 장로)의 평생대학 취미활동반 '실버스타 발표회'가 있었다. 베다니홀에서 열린 발표회는 평생대학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소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취미활동 12개 반(몸 찬양, 하모니카 초·중급, 오카리나, 실버댄스 A·B, 사물, 아코디언, 난타, 클래식기타, 합창, 찬양대)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악기 연주, 춤, 노래로 선보이며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학생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평생대학은 12월 3일(수) 종강예배를 드리고 겨울 방학에 들어갔으며, 방학 숙제로 스바냐 3장 14~17절 암송과 마가복음 전체 필사가 주어졌다. 평생대학은 2026년 3월 4일(수) 개강한다.



클래식기타



은혜의 여정, 함께하신 하나님



전태성 안수집사
인천교구
안수집사회 부회장(교육)

부흥사경회 동행 여정

안수집사회 교육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영락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안수집사회가 더욱 깊은 성숙과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담임목사님의 외부 교회 부흥사경회에 동행했습니다.

3월 상현교회(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4월 양평동교회(서울 영등포구), 5월 수색교회(서울 은평구), 구파발교회(서울 은평구), 6월 영은교회(서울 영등포구), 9월 영동교회(서울 영등포구), 높은뜻광성교회(서울 마포구), 10월 정신교회(서울 중랑구), 서울산정현교회(서울 동대문구), 11월 용문교회(경기도 양평군), 서울숲교회(서울 성동구), 동부광성교회(경기도 남양주시), 12월 주님의교회(서울 송파구)에 동행했습니다.



▲ 2025년 4월 양평동교회
(서울 영등포구) 부흥사경회

◀ 2025년 5월 수색교회
(서울 은평구) 부흥사경회

안수집사회는 담임목사님께서 외롭지 않게 부흥사경회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도록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불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함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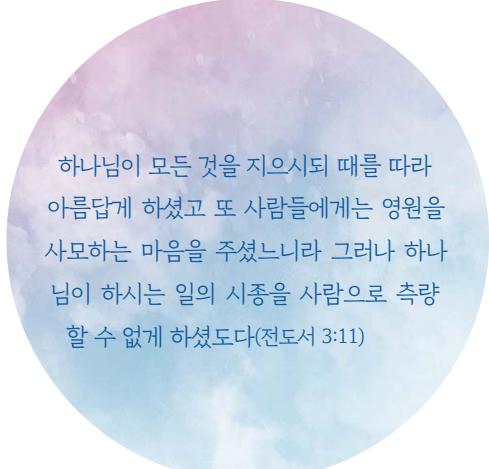
신앙 유산 위의 교회들, 믿음의 씨앗 결실 맺기를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교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순회하며 관리하던 12간 교회로 증축된 교회, 평양 장대현교회를 모교회로 하여 세워져 평양 산정현의 신앙 뿌리를 이어가는 교회, 담임목사님의 부재로 영락교회 주일예배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후임 담임목사 청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등 모두 신앙의 선열들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유산 위에서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의 사랑이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교회와 성도가 새로워지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현장에서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비하신 시간 속, 은혜의 깨달음과 감사

주님께서는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교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곧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흥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
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도서 3:11)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은혜의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지혜를 얻게 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고백록을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다시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의 절정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의 시간’ 속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함께한 부흥사경회의 여정은 언제나 놀랍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환경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신 안수집사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흥사경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모든 순간을 조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며!

새가족부(부장 김호섭 장로)는 주님의 품으로 새롭게 오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위해 매년 세 차례 새가족 환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6일 주일 저녁에 추수감사 음악 예배로 드린 찬양예배 후, 제2식당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세 번째 새가족 환영회가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섬김과 사랑 가득한 나눔을 통해 새로운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환영회는 영락교회의 새로운 지체가 되신 가족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의 마음이 모여 총 206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새가족 78명, 동반가족 39명

양육위원 및 함께한 성도 49명

봉사자 34명, 목회자 및 장로 6명

새가족들이 영락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환영회에 참석하신 양육위원과 성도님들은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로 새가족을 맞아주셨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목회자



양승관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새가족부 환영팀장

및 장로님들의 축복과 기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환영회를 통해 영락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새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영락교회를 신앙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삼고, 아름다운 동행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새가족 환영회는 2026년 3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만날**



친구 통해 우연히 접한 ‘말씀 산책’ 영락의 새가족으로 이끈 믿음의 길

저는 영락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기독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전혀 해 보지 않았고 교회보다는 집 근처 사찰을 연 2회 정도 방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변화된 것은 김진영이라는 친구 덕분입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영락교회의 성도로 평생을 살아온 친구입니다. 김진영은 저와 십수 년간 친구로 지내는 동안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며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선하게 사는 친구를 보니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친구가 제주도에 올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처럼 ‘말씀 산책’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자연스럽게 ‘말씀 산책’을 들을 기회가 생겼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김운성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김운성 목사님의 말씀이 웬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다. 너와 같이 들을 때뿐만 아니라 나도 따로 꾸준히 듣다 보니 뭔가 울림이 있었어. 근데 너처럼 선하게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친구는 “당연히 네 마음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며 신앙생활을 권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저와의 오랜 만남에도 억지로 신앙생활을 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부터 ‘말씀 산책’을 통해 조용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영상으로 영락교회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현장예배를 드렸고, 김운성 목사님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첫마디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김운성 목사님께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다른 성



김현욱 성도
용인·화성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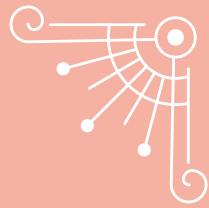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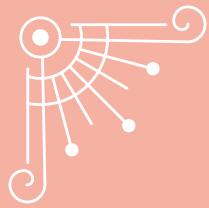
도님들과의 교제가 소중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결심하고 한 달간의 비행 스케줄을 조정해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귀한 친구를 만나 그 친구에게 다가가 신앙에 관해 묻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담당 교역자분들과 양육위원 집사님의 따뜻한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 필사도 시작한 저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기도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며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님의 종으로서 시키시는 게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준 친구 김진영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김운성 목사님과 영락교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2025년 11월

※ 교회 홈페이지 개재 기준



새가정

- 1 김선웅, 김서연 가정
- 2 한치웅, 야스모토 미유 가정
- 3 김예현, 유현재 가정

새아기

- 4 김다율(김성집, 이정은 가정)
- 5 정하진(정재훈, 장소영 가정)
- 6 임주한(임동현, 이승현 가정)
- 7 김하린(김민혁, 권혜민 가정)
- 8 박재원(박희평, 오세미 가정)
- 9 권다해(권오철, 이윤정 가정)



영락시어터 1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십계 (The Ten Commandments, 1956) ALL 226분

상: 4일, 하: 11일

감독: 세실 B. 드밀 출연: 찰턴 헤스턴, 윌 브린너, 앤 백스터, 에드워드 G. 로빈슨

이집트에 살고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위기를 느낀 파라오는 태어난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히브리 여인 요제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운다. 그 아이를 발견한 파라오의 딸 비티아는 모세라 이름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아 왕자로 키운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해 세티 왕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세티의 친아들 람세스는 왕위를 두고 모세를 시기하며 경쟁하게 된다.

탑건: 매버릭 (Top Gun: Maverick, 2022) 12 131분

18일

감독: 조셉 코신스키 출연: 톰 크루즈, 마일즈 텔러, 발 퀸터, 글렌 파월, 제니퍼 코넬리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매버릭은 자신이 졸업한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된다. 그의 명성을 모르던 팀원들은 매버릭의 지시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 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전설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가 압도된다. 매버릭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가던 팀원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지자, 매버릭은 자신이 가르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지 모를 하늘 위 비행에 나선다.



아름다운 비행 (Fly Away Home, 1996) ALL 117분

25일

감독: 캐롤 발라드 출연: 제프 다니엘스, 앤나 파킨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에이미는 10년 만에 아빠를 따라 캐나다로 돌아오지만, 슬픔과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늪가에서 부화하지 못한 야생거위 알을 발견해 직접 돌보다 새끼 거위들을 부화시킨다. 새끼 거위들은 에이미를 어미로 여기며 따르고, 그녀는 정성껏 보살피지만 법으로 야생 거위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에이미와 아빠는 거위들을 자연에 돌려보내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01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음악예배 갈보리찬양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다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가 11월 30일 갈보리찬양대 주관으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예배는 교회의 지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갈보리찬양대는 교회

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첫 번째 곡인 헨델의 'Coronation Anthem'을 비롯해 '영락이여 비상하라', '은혜의 주님' 등 다양한 곡을 연

주했다. 찬양은 과거 역사에 대한 감사와 현재를 향한 위로, 미래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담아 구성됐다. 특히 '모세',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믿음을 강조했으며, 'Way Maker'와 'GOD'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다. 마지막 곡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일깨웠다.

이번 음악예배를 통해 찬양대와 성도들은 영락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신 분이 오직 하나님의심을 다시 고백하며 감동을 나눴다. 갈보리찬양대는 이번 예배가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했다.

노윤곤 집사 _ 갈보리찬양대 총무

02 빛으로 오신 예수님… 2025 성탄 트리 점등식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11월 30일, 베다니홀에서 교회창립 80주년기념 음악예배가 드려졌다. 예배 직후 베다니광장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 이어졌다.

CebC 어린이찬양대의 울동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방덕종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점등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빛으

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자고 권면하며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육부에서 준비한 조명 등으로 불빛을 밝힌 성도들의 환호 속에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트리는 점등되었다. 성도들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구세주 탄생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불을 밝힌 성탄 트리는 2026년 1월 중순까지



베다니광장에서 성탄과 송구영신의 새 희망의 빛을 비출 예정이다.

취재 김경옥 기자



03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주일 및 제53회 장로·제54회 안수집사 임직예식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7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운성 담임목사는 '아름다운 주님, 아름다운 교회'(누가복음 2:8~11, 에베소서 1:22~2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이며, 영락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흄 없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된 '교회 모습을 담은 기념 케이크'는 예배 중 성도들에게 공개되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교회 본당의 모습을 섬세하게 재현

한 케이크는 많은 성도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웠고, 사진으로 그 순간을 담으며 지난 80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3부 예배 후 베다니광장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어 기념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고, 예배 후 나누어진 기념 빵은 서로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이어주었다.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제53회 장로 및 제54회 안수집사 임직예배로 드려졌다. 예배는 김운성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서울노회 노회장 이언구 목사(용문교회)는 '은혜를 찬송하고, 수

고로 아멘한다!'(고린도전서 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멈추지 않고 '하나 더 하는 수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직예식은 당회장 김운성 목사의 집례로 새로 임직된 장로 5명과 안수집사 14명 소개, 서약, 안수기도, 안수위원회의 약수례, 임직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서울노회 중부시찰장 안재평 목사(을지로교회)는 "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이후 서울노회 장로회 부회장 육근해 장로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임직자 대표 오은택 장로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창립 80주년 기념주일과 임직예식을 통해, 지난 8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앞으로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임직자 명단 52면)

취재 김천경 기자



개척 교회의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다 2025 구역장 대회 개최

04

구역장과 권찰 820명이 함께한 구역장 대회가 2025년 12월 5일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공동체의 현재를 점검하고, 교회 창립 81주년을 맞아 목양의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출애굽기 1장 6~7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영적 세대를 갈망하며'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참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는 생명력과 확장의 비전을 다시금 불드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6교구 74구역 이명숙 권사와 11교구 22구역 김윤하 집사가 구역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은혜와 순종의 이야기를 나누어 참석자에게 깊은 공감과 도전을 전했다.

또한 2026년도 목양부 사역 계획이 보고되며 향후 사역의 방향이 공유되었다. 교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 모임의 날'과 '구역장 수련회'를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구역 모임의 날은 4~6월과 9~11월 매월 첫째 주에 금요권찰예배를 대신하여 진행되며, 교구 교역자들이 직접 예배에 함께하여 구역사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적 데이터를 정비·고도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목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양동욱 전도사 _ 목양부

예수님의 생애와 절기 주제 강단장식팀 꽃 전시회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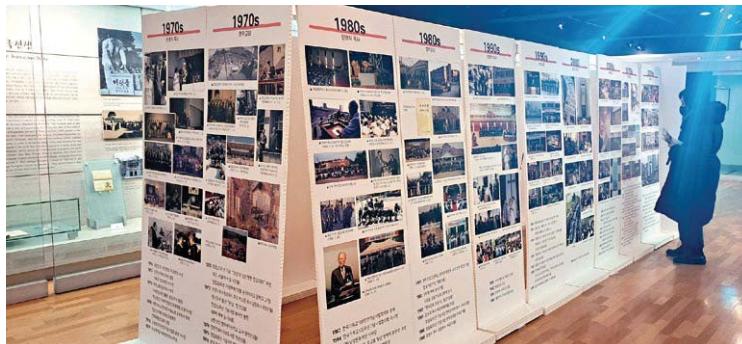
우리 교회 강단장식팀(팀장 구인향 권사)에서는 교회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꽃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생애와 절기'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5일(금)부터 7일(교회창립주일)까지 50주년기념관 1층과 지하 1층에서 꽃 전시회를 열었다.

12명으로 구성된 강단장식팀은 신



년주일, 주현절,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어린이주일, 성령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교회창립주일, 성탄주일 등 교회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를 꽃으로 표현한 총 20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를 맡은 구인향 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영락교회창립 80주년을 축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 절기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 80년’ 전시

06

한경직 목사 별세 25주기와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

지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경직 목사의 일대기와 영락교회의 성장 과정,

시대별 주요 사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10년 단위 연대기 형식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1974년 영락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기록영화 <눈물 골짜기의 샘물>과 1987년 한경직 목사 84회 생신 감사예배에서 생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영상을 함께 상영하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교회창립 80주년 영락 장로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열려

07

교회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음악부 (부장 양성호 장로) 토요음악회 주최로 12월 7일(토) 선교관에서 영락장로부 부합창단(단장 나선환 장로) 기념연주회가 열렸다. 연주회는 박신화 장로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한나형, 테너 조성환, 베이스 안대현, 피아노 김은진이 함께 했으며, 영락장로부부합창단의 합창과 알테 무지크 서울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주제로 한 연주는 제1, 2, 3부로 구



성되어 총 22곡을 선보였다. 악장마다 어둠에서 빛이 밝혀지며 자연 만물이 피어나는 과정을 음악의 선율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큰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이날 가족과 지인 200여 명의 관객이 선교관 자리를 가득 메웠다. 2014년 창단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 정기연

주회를 이어가고 있는 영락장로부부합창단의 무대는 단원 50명으로, 장로부부 15쌍이 출연하여 웅장한 합창으로 교회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서울시의사회, 영락보린원·영락애니아의집 쌀·성금 전달식

서울시의사회는 12월 12일(금) 영락보린원과 영락애니아의집에 10kg짜리 쌀 9포대와 성금 총 410만 원(영락보린원 210만 원, 영락애니아의집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박홍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영락보린원장, 영락애니아의집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홍준 이사장은 “매년 서울시의사회에

서 소중한 뜻을 모아 도움을 주고 계신

다. 용산구의사회에서도 아이들과 직원들을 위한 진료 등 여러 방면으로 협조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08



일정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2시~5시(7, 12월 휴강)
- 1/31, 2/28, 3/28, 4/25, 5/30, 6/27, 8/29, 9/19, 10/31, 11/28

안내

- 1교시 성경적 결혼의 원리 2교시 대화의 실제 3교시 결혼의 실제
- 봉사관 405호(사전예약)

기타

- 결혼 예식을 앞둔 모든 예비 부부(본교, 외식예식, 타교회 교인도 가능)
- 문의 : 봉사관 303호 상담부(02-2280-0171)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2025년 12월 7일 임직)

제53회 장로(5명)



오은택



목홍근



권기용



이민하



한요섭

제54회 안수집사(14명)



김경석



백정진



송승호



권오택



조명철



한철형



김학성



류승호



김주업



조현수



신철호



이찬희



이성재



김명성

2026년 제직부서 신임 차장

선교부	북한선교부	사회봉사부
		
신동엽	민병준	안승환
정인기		윤창완
교육부	독양부	전도부
		
황문선	정신한	김병기
		차영수
		김상학
제자양육훈련부	새가족부	음악부
		
고정석	양승관	송영백
		김창섭
		김병삼
		김정훈
IT미디어부	재정부	자원봉사부
		
최은오	박용성	이재학
		고두선
		설근동
서무부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이성우	김용진	최판곤

이임목사(2025년 12월 21일 이임)



이영호 목사(2020)

고등부

→ 제이플로우교회 개척



이종실 목사(2023)

중등부

→ 제이플로우교회 개척



현성인 목사(2019)

IT미디어부, 전도부(주중사역)

→ 신일교회 부목사



김지웅 목사(2019)

고양·파주교구, 사회봉사부

청년회(겸임), 찬양인도(수요)

2025년 10월 23일 목사 안수

→ 새성남교회 부목사



박소망 목사(2022)

관악동작·금천교구, 평생대학
찬양인도(4부), 예배자학교

2025년 10월 23일 목사 안수

→ 일산충신교회 부목사



최에녹 목사(2022)

강동·송파교구, 목양부

2025년 10월 23일 목사 안수

→ 새성남교회 부목사



장대성 목사(2022)

대학부, 예배자학교

2025년 10월 23일 목사 안수



김진재 목사(2021)

강북·도봉교구, 베드로부

찬양인도(금요)

2025년 10월 23일 목사 안수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원목실

* 성명 옆 괄호는 본 교회 부임 연도

아래 기재 내용은 2025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2026년 신임교역자(부서목사 1명, 부서전도사 1명, 전임전도사 6명)

부서교역자



김현준 목사
고등부
Moody Bible Institute 성서언어학
장신대 신대원
서울드림교회 목사(청소년부, 교구)



김혜민 전도사
아동부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일반대학원 선교신학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초등부)

전임전도사



김지훈
IT미디어부
고신대 국제문화선교, 장신대 신대원
부산진교회 전도사(초등부, 중·고등부)



심창근
강동·송파교구, 교육행정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은광교회 교육전도사(소년부, 중등부)



권현준
대학부, 베드로부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일반대학원 구약학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교사교육부)



권광호
관악·동작·금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선교(문화)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일반대학원 목회와상담
연동교회 교육전도사(유치부, 중등부)



하성준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찬양인도(4부/금요)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서소문교회 교육전도사(초등부, 찬양인도)



김윤중
고양·파주교구, 사회봉사부
영락수련원
영남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금성교회 교육전도사(청소년부)

2026년 목회 분담표



박지운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홍보출판부



최한운 목사
8교구(동대문·중랑)
경조부
베들레헴



박성은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새가족부
할렐루야



남정열 목사
12교구(강북·도봉)
IT미디어부
갈보리



김형찬 목사
13교구(서초)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조두형 목사
1교구(강남)
목회행정
임마누엘



전병주 목사
10교구(종로·성북)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최재선 목사
7교구(서대문·은평)
상담부
가정사역



강승훈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전도부 총괄
영락기도대



탁현수 목사
4교구(중구·용산)
목양부
권사회



김진우 목사
선교부 전담
선교부 총괄, 1남/1여



이후림 목사
15교구(성남·분당)
제자양육훈련부
베다니



오병훈 목사
3040 전담
청년회
3040세대



박용준 목사
3교구(성동·광진)
선교부(국내, 학원, 문화)
2남/2여, 시온



방덕종 목사
교육 전담
교육부 총괄
대학부,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황재영 목사
2교구(강동·송파)
선교부(해외)
3남/3여, 갈릴리



박동진 목사
11교구(노원)
영락수련원
호산나



이지철 목사
18교구(용인·화성)
평생대학, 친교부
사회복지재단



김여호수아 목사
16교구(고양·파주)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지원봉사부



채철우 목사
17교구(안양·수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의료선교부, 4부예배 찬양



김종훈 목사
14교구(인천)
사회봉사부, 4남/4여
전도부(직장인예배)



신주현 목사
중등부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김현준 목사
고등부



김혜민 전도사
아동부



정준희 목사
국제예배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전재량 목사
3040세대
청년회



박성민 목사
설악산수양관



박찬양 목사
영락수련원



김모세 목사
영락기도원

은퇴 항존직(2025년 12월 31일 은퇴)

* 사진 게재는 임직순

장로 은퇴자



정천우



정경섭



김명권



김지언



김두형



김성현



김명옥



양성환

안수집사 은퇴자



안종태



임영규



안성호



유형창



제해상



김형태



양기섭



김재연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의 몸 된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제직이 상부상조하여 노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은퇴하신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자격 :** 2025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한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 **가입 기간 :** 2026년 1월 4일(주일) ~ 12월 27일(주일)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은퇴제직상조회)

▣ **가입 절차 :** 배부된 가입원서에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및 날인하여 수납창구에 제출(가입원서는 수납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참고사항

① 회원 자격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포함), 안수 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

② 회비 납부의무 <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 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 시 2만 원 그 후 매년 1만 원
- **부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 원

③ 수혜사항 <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6,000,000원 지급(수권자에게 지급)**
- **회원 가입 후 만 17년(204개월) 이후부터는 부조금(1만 원) 납부 면제 <연회비 2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5시까지 ☎ 02)2280-0238〉 회장 : 조영리 은퇴장로, 총무 : 오계환 은퇴장로

은퇴제직상조회 안내





아기 예수의 성전 봉헌

Presentation of Jesus
in the Temple

1631

伦勃朗特 丹 伦

Rembrandt van Rijn
1606~1669

아기 예수의 정결예식, 구원의 빛으로 오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누가복음 2:28~30)

17세기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초기 걸작 <아기 예수 성전 봉헌>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의 장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율법에 따라 정결예식을 위해 성전에 봉헌되었을 때의 감격적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어둡게 처리된 성전 내부 속에서 화면의 중심인 아기 예수로부터 밝은 빛이 퍼져나와 주변을 비춥니다. 이 빛은 세상에 오신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을 상징합니다.

아기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로,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므온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렘브란트는 25세에 이 빛과 어둠의 극적인 명암대비를 보여주며, 구원의 희망이 바로 이 작은 아기에게 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1월호 통권 621호

발행 2026. 1.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용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표지설명



눈으로 덮인 겨울 산자락 위로 새해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따뜻한 빛을 비추시며, 우리 걸음을 소망의 길로 이끄십니다. 올해 첫 달 1월, 영락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 목사 □: 전도사 ●: 파트목사 ○: 준전임 전도사 ○: 파트전도사

예배	예 배 위 원 회	■ 전병주	■ 강승훈(기도)	□ 이예찬	□ 지 산(기도)
	음 악 부	■ 전병주			
	예 배 찬 양 팀	■ 채철우(4부)	□ 허성준(4부)	□ 안태성(주일찬양)	□ 김예담(수요)
	국 제 예 배	■ 정준희	● 변성국	○ 송희송	
교육	교 육 부	■ 방덕종	□ 심창근	사 랑 부	● 홍준표 ○ 박예슬
	영 · 유 아 · 유 치 부	■ 홍지연(영아부) ○ 김연주(영아부)	○ 윤혜은(유아부) ○ 방하민(유아부)	○ 허 산(유치부) ○ 공예은(유치부)	
	아 동 부 (C e b C)	□ 김혜민(소년부) ○ 김동현(소년부)	○ 신지원(초등부) ○ 김용한(초등부)	○ 최종권(유년부) ○ 이주원(유년부)	○ 박정훈(CebC)
	종 등 부	■ 신주현	□ 정근우	○ 이동찬	○ 손종혁
	고 등 부	■ 김현준	□ 강주심	○ 원종인	○ 이하정
	대 학 부 (배 드 로 부)	■ 방덕종	□ 권현준	○ 김철환	○ 김홍재 ○ 방정희
	청 년 회	■ 오병훈	■ 전재량	□ 김예담	□ 김 휘 ○ 홍승표 ○ 박요섭 ○ 김대웅
	교 회 교 육 원	■ 방덕종	○ 김은주		
	교 사 교 육 부	■ 방덕종	○ 김은주	3 0 4 0 세 대	■ 오병훈 ■ 전재량
교구 목양	목 양 부	■ 탁현수	■ 채철우	□ 양동욱	□ 정주언
	제 자 양 육 훈련 부	■ 이후립	■ 김여호수아(소그룹)	□ 김승겸(소그룹)	□ 권광호
	새 가 족 부	■ 박성은	□ 이태규	□ 조수찬	
	전 도 부	■ 강승훈	■ 김종훈(주중사역)	□ 안태성	○ 강주심(주중사역)
	경 조 부	■ 최한윤	□ 이태규		
	친 교 부	■ 이지철	□ 정주언(한마음찬양반)	평 생 대 학	■ 이지철 ○ 강하림
	상 담 부	■ 최재선	□ 허성준	○ 이영미	○ 정효진
	영 락 기 도 원	■ 김모세		설 악 산 수 양 관	■ 박성민
	영 락 수 련 원	■ 박동진	■ 박찬양	□ 조수찬	□ 김윤중
선교	선 교 부	■ 김진우 □ 최 인	■ 박용준(국내, 학원, 문화) □ 김민혁(선교훈련)	■ 황재영(해외) □ 권광호(문화)	■ 전재량(부부, 청년) ○ 김영석(유학생, 학원)
	의 료 선 교 부	■ 채철우			
	북 한 선 교 부	■ 김형찬	□ 정성훈	○ 임서연	○ 이진우
	1남 선교회 1여 전도회	■ 김진우		3남 선교회 3여 전도회	■ 황재영
	2남 선교회 2여 전도회	■ 박용준		4남 선교회 4여 전도회	■ 김종훈
	안 수 집 사 회	■ 전병주		권 사 회	■ 탁현수
사회	사 회 봉 사 부	■ 김종훈	□ 김윤중		
목회 행정	목 회 행 정	■ 조두형	□ 안재명		
	I T 미 디 어 부	■ 남정열	□ 김지훈	□ 김민혁	□ 강하림
	자 원 봉 사 부	■ 김여호수아		홍 보 출 판 부	■ 박지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정준희	□ 김승겸		
교구 (목사& 전도사)	1교구/ 강남	■ 조두형	□ 양동욱	10교구/ 종로 · 성북	■ 전병주 ○ 이태규
	2교구/ 강동 · 송파	■ 황재영	□ 심창근	11교구/ 노원	■ 박동진 □ 조수찬
	3교구/ 성동 · 광진	■ 박용준	□ 강주심	12교구/ 강북 · 도봉	■ 남정열 □ 허성준
	4교구/ 중구 · 용산	■ 탁현수	□ 안재명	13교구/ 서초	■ 김형찬 □ 정주언
	5교구/ 관악 · 동작 · 금천	■ 박성은	□ 권광호	14교구/ 인천	■ 김종훈 □ 지 산
	6교구/ 강서 · 구로 · 양천	■ 박지운	□ 강하림	15교구/ 성남 · 분당	■ 이후립 □ 김 휘
	7교구/ 서대문 · 은평	■ 최재선	□ 김승겸	16교구/ 고양 · 파주	■ 김여호수아 □ 김윤중
	8교구/ 동대문 · 중랑	■ 최한윤	□ 이예찬	17교구/ 안양 · 수원	■ 채철우 □ 정근우
	9교구/ 마포 · 영등포	■ 강승훈	□ 김민혁	18교구/ 용인 · 화성	■ 이지철 □ 안태성
음악부	임 마 누 월 찬 양 대	■ 조두형	호 산 나 찬 양 대	■ 박동진	할 렐 루 야 찬 양 대
	갈 보 리 찬 양 대	■ 남정열	베 드 레 햄 찬 양 대	■ 최한윤	베 다 니 찬 양 대
	시 온 찬 양 대	■ 박용준	갈 릴 리 찬 양 대	■ 황재영	교 회 음 악 아 카 데 미

아기 예수의 성전 봉헌 Presentation of Jesus in the Temple

렘브란트 판 레인(Rembrandt van Rijn)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